|  |  |
| --- | --- |
| 주기도문 본문 연구 |  |

http://www.duranno.com/sl_subimages/dot_w.gif

|  |
| --- |
| 주기도문 본문 연구 장 광 용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  필자는 이 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의 셈족 언어를 기반으로 한 구문 분석과 배경 이해를 통한 새로운 시각에서 통찰한 몇 가지 개념들을 논의하고,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인 ‘천국’의 건설과 하나님의 의 구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13절과 누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돼 있다. 이 두 판의 주기도문의 상이함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의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1)보통 학자들은 마가복음에 없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들을 Q독일어 ‘Quelle’의 머릿글자로 자료라는 뜻임 어록에서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2)다른 학자들은 마태복음판은 소위 마태의 특수자료M, 누가복음판은 누가의 특수자료L에서 전승받아 이 두 본문들을 제각기 기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3)마태나 누가 중의 하나는 Q에서 자료를 받았고, 그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특수 자료 M이나 L 중의 어느 한 특수 자료에서 전승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4)마지막으로 누가가 마태에 의지해서 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중에 어느 가설이 가장 합당한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첫 번째 가설을 가장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추세다.  다음 두 복음서 기록의 대조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상당 부분 상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상당 부분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기도문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첫째,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 이것을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으나 누가는 평지수훈6:17~49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언급한다. 둘째, 마태는 주기도문이 가르쳐지게 된 동기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나 누가는 이를 언급하고 있다. 부언하면 마태는 어느 누구의 요구를 받은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주기도문을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기도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교훈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1절. 셋째,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상 여러 가지 상이점이 드러난다. 이 두 문서들의 상이점이 무엇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복음(11:2~4) 마태 복음(6:9~13) 2절 아버지여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2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절 나라이 임하옵시며 10절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아무튼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델은 동일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두 복음서 간에 나타난 차이점을 볼 때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도문이 중보 가필된 것이든가 아니면 누가복음판의 주기도문이 생략 및 요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느 것이 옳다고 감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누가복음판이 원형에 가까운 것 같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교훈의 동기가 누가복음에 더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마태는 유대교의 가식과 위선에 치우친 기도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언급한 반면 누가는 유대교의 외식적 기도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기도까지 총괄하여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독자적 관점에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1절. 우선 누가복음 11장 1~2절의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면 누가는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으니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함으로 11장의 서문을 연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소위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 내 종말을 대비해 부흥운동을 하던 사람 및 단체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잘 아는 중산층 평신도 경건운동인 바리새 운동, 세상 종말을 예비하는 에센파 운동, 나중에 크게 세력을 얻어서 유대 전쟁을 일으키는 열혈당 운동 등이 그런 단체들이다. 그런 운동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에서의 회개의 세례 운동인데, 세례 요한은 임박한 종말의 심판을 대비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운동을 전개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원래는 이 요한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음을 사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 이후에서 잘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세례 요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요한의 회개의 복음 선포 운동에 동참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기점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립한 후 요한의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면서 율법의 새로운 정신과 강조점으로 자신의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복음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또한 일부 예수와 함께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다. 요한은 하나님이 곧 오시사 불로 심판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셨다. 요한이 심판에 대비한 극도의 금욕적 절제의 삶을 요구했다면, 예수는 오히려 그와 대조적으로 천국 복음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동참하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요한 운동에 가담하셨다가 후에 독립하여 새로운 정신, 이상, 소망과 태도를 표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신다.   시대적 격변기에 필요했던 새로운 기도인 주기도문 이러한 시대적 격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학과 이상과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했다. 요한이 가르친 기도가 요한의 신학을 담아서 요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드러냈듯이 예수님의 천국운동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가르친 신학과 이상과 소망 등을 내포해 표현함으로써 예수께서 지금 새롭게 구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부각시킬 그러한 기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유형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주기도문이 주어진 것이다. 누가복음이 밝히 표명하는 것처럼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새롭게 창조 및 구성하는 천국 백성의 신앙과 이상과 소망을 가장 잘 담아 표현하며, 천국 백성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의 가장 모범과 기본이 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유대교의 공적인 기도 중 하나인 ‘카디쉬’아람어로 ‘거룩한’이라는 뜻임 기도는 유대의 회당에서 수업·설교·예배가 끝날 무렵에 함께 하나님의 위대성과 초월성별성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등을 낭송했던 감사와 찬미의 시와 송영이며, 짤막한 기도다. 다른 하나는 18가지의 요망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의 송축문을 암송하며 드리는 제18축복·송축기도인 ‘쉐모네 에스레’ 혹은 베락호트/ 테필라인데, 이것은 ‘아미다’Standing prayer, 일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랍비 문학에서는 ‘테필라’라고도 지칭되며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씩 아침샤카릿, 오후 시작민카, 저녁 시작마 아립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였다. 이 제18축복기도야말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였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 처음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18기도와 함께 드려졌다가 점차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제18기도를 대체하고 교회의 유일한 모범기도가 된 것 같다.  당시는 이방인 선교로 제18축복기도의 전통을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 곧 주후 66~70년까지의 유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와 유대교가 서로 분리되고 특히 유대 전쟁 직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유대 회당에서 많이 축출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을 파악키 위해 제18축복기도문의 열두 번째 기도를 보면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근절되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패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이 우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송축합니다.”  제18축복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항목이 반영하듯이 이 무렵에 명백히 나사렛 예수당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로 규정되어 유대회당에서 축출되었다. 이때 교회와 유대 회당이 명백히 분리되면서 교회는 유대교와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게 되었다. 이처럼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역사적 상황,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에서 교회가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제18축복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고, 대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본적인 공회중기도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 한 중심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싣고 있고, 6장 1~18절은 세 개의 대표적인 종교·경건 행위들즉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친다. 또 기도 부분에서도 한 중앙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장 5~15절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5~9절 전반부까지는 그릇된 기도들로서 첫째,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둘째, 이방인들의 말을 돌려 매우 복잡하게 하는, 즉 명료하지 못한 중언부언의 기도를 비판하신 후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연이어 천국공동체를 위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강조점사회학적으로 말하면, ‘We-feeling of co-operate personality’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마치신다. 또 마태는 문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마태복음을 5개의 강론과 5개의 설교로 구성하고 역시 한가운데 주기도문을 삽입했다. 이것은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제자의 삶에 가장 근본 도리이며, 이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위, 아래를 다시 분석해 보면 마태는 6장 8절, 14~15절로 틀frame을 짜고 그 틀 한가운데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을 삽입함으로써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문학적 구조에서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기도문을 해석함으로써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그 강조점을 음미할 수 있다.  주기도문에 송영이 덧붙여진 배경  마태판과 누가판을 비교할 때 원래 최초의 사본에는 없으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예배 의식에서 항상 수반되는 송영doxology이 있다. 이것은 원래 누가판에는 일단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고대 사본들에도 안 나온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원래 송영이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모든 기도에는 항상 송영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송영이 “기도문의 마지막 문학적 장식의 고정된 틀frame”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대인의 기도는 항상 송영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송영을 첨가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 이 기도를 배운 원래 제자들도 항상 송영을 덧붙여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교회 전통에 정형화된 이 송영 형식“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다”이 덧붙여지게 되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다.  북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교부 터툴리안은 “그의 기도”란 논문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중 “우리를 악과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까지는 공식적인 기도이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개인적 기도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뒤에 터툴리안이 속한 서방교회에서는 자기들의 특별한 청원들을 올리고 송영들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동방교회에서는 회중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사제가 이어서 송영을 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지금도 동방교회의 예배의식liturgy에서는 회중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까지 하면 집례자인 사제가 “왜냐하면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송영을 덧붙인다. 그래서 이 송영이 동방교회에서는 사제가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송영 없이 이 기도를 마친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시고, 그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이 함께 나온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항상 송영을 드림으로 예배·수업·설교를 종결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송영이 첫 사본에 없는 이유는 아마 이 부분은 사제가 그때그때 적절하게 만들어서 했든지 아니면 기도를 올리는 회중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자유롭게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기도문 본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일부 늦은 마태복음 사본에 나오는 것처럼 송영이 점점 예배 의식에서 정형화된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칭송하는 이 부분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착안하여 인용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하시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영감을 받아 삼중으로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송영은 주기도문의 첫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와 소위 한 짝Inclusio을 이룬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끝에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 거룩하심, 만유의 주재가 되심, 그의 영광스러움을 재천명한다. 첫 청원과 끝의 송영이 한 짝을 형성하는 구조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을 아버지아람어로 ‘아바’이며, 애칭의 용어인 우리 말 ‘아빠’, 영어의 ‘dad’ 혹은 ’daddy’는 적절하지 않음로 호칭하는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이란 형용사를 수식어로 마태가 덧붙인 것인지 아니면 누가가 생략한 것인지다. 하나님을 호칭할 때 누가판에는 “아버지여”라고 호격을 사용하는 반면 마태판에는 “하늘에 계시는”이라는 수식어구가 첨가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판에는 없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란 셋째 청원이 첨가되어 있다. 마태의 여섯 번째 청원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눅 22:40라고 당부하신 ‘허락의 명령법’permissive imperative과 직결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출원하여 주소서”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 청원의 두 번째 부분인 “악과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란 문구가 누가복음에는 없다.  따라서 이 세 부분이 누가가 원래 있었던 것을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것을 마태가 덧붙인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마태가 덧붙인 것으로 본다. 즉 누가가 예수의 원래 기도를 전달했고, 마태가 이를 확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송영과 ‘하늘에 계시는’이란 문구가 잘 보여 주듯이, 교회 예배의식Liturgy에 오래 사용되면서 매우 풍부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가판에 없는 것들이 마태판에 있는 이유는 마태가 주기도문의 뜻을 분명하고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검토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사항은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에는 몇 개의 청원들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우선 마태와 누가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5개의 청원, 마태복음에는 6개의 청원이 있다. 누가판에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 마태판이 나중에 교회의 예배의식상의 필요로 인해 공식 기도문에 송영을 첨가시킨 것 같다. 그런데 유심히 관찰하면 주기도문이 사실은 4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마태의 셋째 청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분명히 바로 앞에 위치한 하나님 나라의 청원을 부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의 나라가 땅 위에서도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마태가 덧붙여 청원한 것에 대한 부연이라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세계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상의 인간을 그의 대리자로 세웠다창1: 26~2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인인 아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해 도리어 사탄의 유혹에 빠지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 결과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땅 위에서는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땅 위에 건립되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부연이다.  게다가 마태의 셋째 청원을 마태복음 7장 21절“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이 재차 지원해 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시행되는 것은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연달아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와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두 문장은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마태의 셋째 청원은 1)누가복음에는 없고, 2)마태복음 내에서도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며, 3)유대 세계관에서도 같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있었던 청원이 아니고 마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청원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첨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줄어 우리는 지금 누가의 다섯 번째 청원에 이르렀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첫 청원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는 진정한 청원이라기보다는 기도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세상과 성별되신 하나님과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문구로 간주해야 한다. 이른바 전통적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청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카디쉬’ 기도의 첫 줄 내용“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과 동일하다.  또한 유대인들의 제18송축베락호트기도데필라의 구조를 분해해 보면 1~3절은 찬양의 서문, 4~9절은 나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청원들이며, 그 다음에 10~16절까지는 종말론적인 청원들, 17~18절은 결론 부분이다. 그런데 1~3절까지의 찬양 부분에 해당하는 서문은 주기도문 중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란 문구에 해당한다. 특히 3절에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심을 유발하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에 해당하는 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가 보통 첫 청원이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송축 문구다.  또 유대 문서 중 랍비 문서나 쿰란 문서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명하고 그 성호를 송축 선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법이다. 예수님도 그 어법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호칭하고 하나님이 초월자 되심을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참고, 카디쉬 기도문의 둘째 줄인 “그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여지기를 원하며,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런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도”란 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란 말을 수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서도”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만 수식하는데, 전후 문맥을 살펴 볼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문구는 청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송축이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6장 32절 전반부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6장 7절과 짝을 이루고, 32절 후반부“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다 아신다”는 8절과 짝을 이룬다. 또한 7절에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문구와 7~8절이 주기도문의 서문인 것처럼 6장 32절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은 6장 33절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에 대한 서문 역할을 하고 있다.  환언하면 6장 33절은 주기도문의 요약이라 볼 수 있고,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의이며,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다. 이런 것들은 양식 청원과 죄 용서 청원과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에 유의한다면 문학적 맥락에서 이런 것들은 엄격히 일용할 양식의식주의 청원만을 말하는 것이고, 죄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는 청원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만 요약하고 그 외의 것들을 양식 청원으로만 요약한 것을 볼 때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청원만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주기도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개의 청원들, 즉 일용할 양식·죄용서·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청원들은 부수적인 청원이며, 바로 이 네 개의 청원들이 원래 예수께서 의도하신 청원들이다.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관찰은 마태판과 누가판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와 11절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어진 12절의 그리고카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소서”란 어구는 청원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겠다”는 서약이다. 왜냐하면 독일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아스의 주장처럼 신약원전 6장 12절의 헬라어 동사 ‘아페카멘’은 직설법 과거 능동태 복수 1인칭 동사인 ‘아피에미’의 변형이다. 동사의 완료형을 기본형으로 하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공용어로 사용된 유대 아람 방언의 완료형 시제로 대치해서 번역해 보면 이 단어는 동시의 완료성perfectum co-incidentie을 나타내며 그 뜻은 “하나님, 우리의 빚죄를 탕감용서해 주옵소서. 이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용서하여 주겠나이다”가 된다. 이 문장의 후반부는 바로 우리의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참고, 마 18:27. 여기에서도 접속사 ‘카이’그리고가 쓰인다. 즉 “그리고카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소서”13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이 세 개의 청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도 마찬가지다. 누가복음 11장 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카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permissive imperative이다. 반면에 앞에 이른바 전통적인 해석에서 세 개의 청원에는 접속사 ‘카이’가 없다. 마태복음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란 문장에도 없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란 문장에도 역시 없다. 그러므로 앞의 세 개의 청원을 언급하는 이 문장 구조는 주기도문의 중심 청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상게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기도문을 요약한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중심 청원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용서, 악으로부터 구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기도문은 네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청원. 둘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 셋째, 죄 용서에 대한 청원, 넷째, 지금도 완전히 박멸되지 않은 죄와 악인류에게 해독을 끼치는 재난과 질병 등·악한 자마귀, 참고, 당시 이러한 의미를 뒷받침해 주는 유대교적 배경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은 마 13:19, 38; 눅 11:26, 28이다·악한 세상참고, 요 17:15으로부터‘아포 투 포네루’에서 ‘투’는 단수 남성과 중성 모두의 소유격으로 양자택일의 가능성이 있다의 보호에 대한 청원 등 네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개의 청원이 다 동등한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네 개의 청원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청원과 다음 세 개는 서로 같은 것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더불어 수반되는 우리들을 위해 초월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사하시는 축복을 위한 청원들이다. |